

美 루시드 후에 원통형 배터리 독점 공급... 크기 절반



美 루시드모터스 '루시드 에어'에 원통형 배터리 '21700' 공급기로 기존 배터리 보다 용량 50% 높여 전기차시장 모든 포트폴리오 확보

LG화학이 전기차 업체 루시드모터스와 본격 손을 잡았다.

LG화학은 25일 미국 루시드모터스의 전기차인 '루시드 에어' 표준형 모델에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금액은 계약상 밝히지 않았다.



LG화학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21700.

/LG화학

루시드모터스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로부터 10억달러(약 1조 1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신생 전기차

업체로 올해 하반기 첫 양산차량인 '루시드 에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LG화학이 루시드모터스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불리는 '21700' 제품이다. 원통형 21700 배터리는 지름 21mm, 높이 70mm의 외관을 갖춘 제품으로 기존 원통형 '18650' 배터리(지름 18mm, 높이 65mm) 대비 용량을 50% 높이고 성능을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21700의 상용화로 기존 18650에 비해 적은 수의 배터리를 연결해 원하는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김중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사장은 "루시드 모터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기존 파우치 배터리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됐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시장도 적극 공략해 향후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확실한 글로벌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로린슨 루시드모터스 CEO는 "LG화학과의 협업은 루시드 모터스가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최고의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전기차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루시드모터스와의 공급계약을 기점으로 대형 파우치 및 소형 원통형 배터리로 양분된 전기차 시장에서 모든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 대형 파우치 배터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위 20개 중 폭스바겐·르노·볼보·GM·현대 등 13개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해 왔으며 최근 GM과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하는 등 이미 150조원의 대규모 수주잔액을 확보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취임

(LS산전 회장)

"불확실성 시장, 힘 모아 해법 모색"

구자균 LS산전 회장(사진)이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구자균 회장을 제 1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진흥회 임원으로 구성된 전기산업 발전위원회와 지난 11일 열린 진흥회 이사회를 거쳐 회장 후보로 추대됐다. 구자균 회장의 임기는 2023년 2월까지 3년이며 진흥회 병설기구인 한국 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 이사장도 겸임하게 된다.

구자균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국내 시장 침체 등에 더불어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융복합 기술 시대의 도래로 과거 어느 때보다 전기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



기 위해 진흥회 회원사가 힘을 모아 해법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기존 전기산업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 확보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구자균 회장의 취임으로 전기산업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진흥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회 관계자는 "구 회장은 지난해부터 국내 산업계 기술개발을 이끌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R&D 분야에 대한 의지가 크다"며 "LS산전은 구 회장이 CEO에 재임하는 동안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100대 혁신기업에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전기산업계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신동빈, 20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임원직 사임

(롯데그룹 회장)

과다검직 논란 해소, 변수 차단 해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0년 만에 롯데쇼핑 등기임원직을 내려놨다. 신 회장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던 과다 검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호텔롯데 상장을 앞두고 변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다음달 22일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계는 다음 달 예정된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됐지만 2013년 물러났고,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에는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



서 물러났고 지난해 말에는 롯데건설대표이사직도 내려놨다. 호텔롯데에서는 비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신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만큼 건설·부동산 유관 계열사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배임 등의 명목으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나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텔롯데의 경우에는 상장을 앞두고 있어 예비심사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신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사내이사에서까지 물러나면서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주요 주주들로부터 공격받던 과다 검직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최근 롯데쇼핑의 주주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자로 바꾸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신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 중 롯데지주와롯데제과, 롯데제과미칼에서 대표이사를, 롯데칠성, 캐논코리아, 에프알엘코리아에서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김민지 기자 kmj@

생산중단 현대차 포터, 하루 만에 재개

코로나19 발생 생산중단 공장 모두 가동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생산을 중단한 소형 트럭 포터에 대한 생산을 재개한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포터 부품을 생산하는 1차 협력사인 서진산업에서 코로나 19 사망자가 나오면서 공장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하면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해 25일 하루 동안 울산 4공장 42라인의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서진산업이 25일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현대차는 26일부터 포터 생산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앞서 서진산업에서는 전날까지 야근했던 지게차 운전자가 지난 21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근로자가 뒤늦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서진산

업은 24일 하루 공장을 멈추고 근로자 280명에 대한 건강 검진에 들어갔다. 서진산업은 포터의 적재함 철판 부분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코로나 19 사태로 생산을 중단했던 국내 공장들 모두 정상 가동하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19와 관련해 추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국내 모든 공장이 정상적으로 조업에 돌입하지만 언제 어디서 환자가 발생할지 몰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공장과 양재본사 출입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모든 근로자 등 출입자 대상자에 대한 체온을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제철, 단조사업 분할... 수익성 확대 드라이브

전문 자회사 현대아이에프씨 신설

현대제철이 거둬들이는 국내 철강업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 분야 사업을 강화하는 등 수익성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우선 현대제철은 단조(금속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를 신설한다. 해당 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 경영을 선언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금속 주조 및 자유단조 제품의 생산과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이를 맡을 전문회사인 현대아이에프씨 주식회사(가칭)를 신설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지난해 단조 사업 부문의 매출은 2293억원이었다. 신설 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고 자산은 5218억원, 부채는 2478억원이다.

분할기일은 4월 1일 오전 0시다.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출범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단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분할 후 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업부문별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적 대응 능력을 높임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제철이 단조사업을 분할한 것은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현대제철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313억원으로 전년보다 67.7% 감소했다. 매출은 20조5126억원으로 1.3%, 순이익은 256억원으로 93.7% 줄었다.

앞서 현대제철은 1월 29일 진행한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 바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영업이익자를 기록하며 올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해 말 만53세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해 현재 100여 명이 퇴사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